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이심점심' 도시락 나눔

전북농협이 육성하는 (사)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위한 따뜻한 점심 나눔 행사를 마련하며 농촌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경리)는 1일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의 후원을 받아 진안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위한 '이심점심(以心點心)' 중식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고향을 떠나 한국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힘을 보태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농업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와 진안농협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을 비롯해 김성훈 NH농협 전북총괄본부장, 지역 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80여명에게 정성껏 준비한 한식 도시락을 전달하고, 한국 생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오상근 기자



정읍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실무 간담회

정읍시가 지역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32개 관련 기관과 손잡고 맞춤형 의료·요양 돌봄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시는 지난달 30일 수성동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협력 기관 관계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실무 회의를 열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월 첫 만남 이후 3월 전국적으로 사업이 시행된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대상자 발굴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협력 체계를 다듬고 지역 특화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노쇠나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등 필수적인 혜택을 한데 묶어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장기 게이트볼대회... 신태인팀 '우승'

정읍지역 32개 동호회(클럽) 300여명이 참가한 제31회 정읍시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지난달 30일 열린 가운데 신태인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정읍시체육회가 주최하고 정읍시게이트볼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역 동호인 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전년도 우승팀인 이광면 선수단의 우승기 반납을 시작으로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으며, 수성동팀이 준우승을 기록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보건소, 경로당 어르신 맞춤형 건강 교실

정읍시 보건소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지역 내 95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신체와 마음 건강을 챙기는 맞춤형 건강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건강 관리 프로그램은 공예와 원예 전문기를 초빙해 어르신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식물을 다루는 원예 수업은 정서적 안정을 돕고 우울감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손을 많이 쓰는 공예 활동은 소근육을 발달시켜 신체 기능 저하를 막고 인지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초 건강 검진을 진행한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 교육도 병행해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합병증을 막을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태권도 발전 노력 이어가겠다'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1주년 맞아

태권도진흥재단은 창립 21주년을 맞아, 1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은 김중현 이사장을 비롯한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 임직원 등이 참석해, 국민약회와 유공자 및 모범 직원 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2005년부터 이어온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원 성지화' 노력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가상 태권도' 발전을 선도하고 태권도 저개발국 지원 등 태권도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태권도연맹 중앙훈련센터이자 한국 관광 100선인 태권도원이 성지이자 태권도 문화 확산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월에는 '세계 피라 태권도 합동 캠프'와 개도국 태권도 초청 연수,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등을 태권도원에서 진행한다. 이어서 9월에는 법정 기념일인 '태권도의 날' 기념식과 함께 지(G)-6 등급의 세계 피라 태권도 그랑프리, '세계 태권도 그랑프리'를 태권도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9월 4일에 열리는 '피라 태권도 그랑프리'에는 상위 순위자 등 체급별로 12명이 참가하고, 9월 5일부터 7일까지 '태권도 그랑프리'에는 2025년 그랑프리챌린지 입상자 등 체급별 상위 순위자 32명이 참가하는 등 2028 로스앤젤레스 패럴림픽과 올림픽을 향한 순위 점수(랭킹 포인트) 확보에 중요한 대회가 될 전망이다.

/무주=손홍기기자



특히, 올해 말에는 태권도원 체임관에 '가상(버추얼) 태권도 훈련센터' 조성이 마무리되면서 태권도원은 세계태권도연맹의 '중앙훈련센터(2016년 지정)' 및 '가상(버추얼) 태권도 중앙훈련센터'(2020년 지정)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가상 태권도 경기 운영자 자격증 과정 등의 교육과 대회 등 가상(버추얼) 태권도 중앙훈련센터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중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 창립 21주년까지 함께 해 준 정부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을 비롯한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등 태권도인들의 지원과 협력이 감사드린다"며 "태권도진흥재단은 앞으로도 가상 태권도와 장수 태권도, 태권도 시범 문화 확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인공지능과 가상 태권도 시대를 맞아 다가올 미래에도 태권도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 경영정상화 반드시'... LX, 창사 49주년 맞아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창사 49주년을 맞아 2027년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선언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1일 전주시 본사에서 제49주년 창사 기념식을 열고 경영위기 극복과 흑자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어명소 사장과 위경열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적재산사업과 민원 처리, 고객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한 우수 직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진행했다.

어명소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매출 확대와 비용 절감, 인사제도 개편, 조직 효율화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토지보상 전문기관 지정과 공유재산 위탁관리기관 선정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한 직원들의 성과도 높이 평가했다.

어 사장은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경영평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경영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사는 지적재산 수요 감소가 이어지는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업무 혁신과 조직 운영 효율화를 추진해 2027년 흑자 전환과 완전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명소 사장은 "비상경영체제의 긴 터널 끝이 보이고 있다"며 "겨울고의 낡은 줄을 풀고 새 줄로 다시 만든다"는 해현정장(解現更張)의 각오로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LX한국국토정보공사는 이날 기념식에서 '2027 경영정상화'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경영혁신 의지를 대내외에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주교도소, 청렴 실천·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전주교도소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과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결의대회는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정착시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렴 실천과 음주운전 근절을 담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또한 공직자로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교정 행정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정민 전주교도소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며,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과 예방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신뢰받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는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과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방침이다.

/이만호기자

장수소방서, 119 안전센터 등 대상 간담회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지난달 30일 각 파(단)와 119안전센터, 구조대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한동규 서장은 현장 부서를 순회하며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가감 없이 청취했다. 아울러 현장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대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번 소통의 시간에는 MZ세대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직장 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자유롭게 오갔다.

/장수=곽관호 기자

김제경찰, 여름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총력

김제경찰서(서장 허성수)는 지난달 30일 여름철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함께 농촌지역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경찰서는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율방범대원들에게 사고 발생 개요와 원인 등을 설명하고 사고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모 착용, 과속 및 음주운전 금지 등 이륜차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륜차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아울러 최근 농촌지역에서 고령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역 주민보호센터를 중심으로 고령층 대상 교통안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 서원시니어클럽·전라라이온스클럽
폭염 속 노인일자리 어르신 안전 위해 '맞손'

전주 서원시니어클럽과 전라라이온스클럽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전주 서원시니어클럽(회장 김경옥)은 최근 전라라이온스클럽(회장 김진영)으로부터 생수 1,500병을 후원받고, 혹서기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맑은물(주) 생수공장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생수를 전달하고, 폭염 대응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후원된 생수는 공익 활동과 환경정비 등 야외에서 활동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에게 순차적으로 지급돼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주 서원시니어클럽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복지 향상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인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JTV, 친환경 자원순환 실천 캠페인

전주시가 지역 방송국과 손잡고 일상 속 1회용품 줄이기 등 친환경 자원순환 실천 문화 확산에 나섰다.

시는 1일 JTV 전주방송 코미에서 JTV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1회용품 제로 & 자원순환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시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과 체결해 온 '1회용품 없는 조직문화 만들기'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JTV 전주방송과 관련 협약을 체결했으며, 미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국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해 자원순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찾아가는 캠페인'을 준비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시는 방송국 임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회용품 사용 줄이기 △개인 다화용기(텀블러) 사용 △장비구리 생활화 등 일상 속 실천 수칙을 적극 홍보했다. 특히 개인 텀블러 등 다화용 컵을 지참한 직원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토크쇼'가 진행돼 호응을 이끌어 냈다.

/권희성 기자

김제 '공정농부차씨', 2026 농촌창업 최종 선정

김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농촌창업 경진대회(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에서 농촌 지역 우수 농산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 7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178개 기업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번 공모에서 김제시 봉남면의 청년 창업기업 '(농)유한회사 공정농부차씨(대표 차정환)'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공정농부차씨는 영농창업 후 직접 생산한 김제산 농공과 목이버섯을 활용해 두유, 건강 스낵인 '두목칩' 등 차별화된 기능성 가공식품을 개발·판매하는 농촌융복합 창업 기업이다. 귀농 초기 연소득 350만원 수준의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온라인 플랫폼, 로컬푸드, 라이브커머스 등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지역 농산품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31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김제시는 지난 두 달간 이어진 반려동물 자진 등록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발생 방지와 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 등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및 반려동물 안전조치(인식표, 목줄 미착용)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매년 2회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